

광주서 지역 최대 규모 창업페스티벌 열린다

시, 28~29일 김대중컨벤션센터서
스타트업·대중견기업 526곳 참가
실증 빌리지·실증 Q&A관 등 운영
전시·체험·포럼·투자유치IR 등 다채



광주에서 지역 최대 규모의 '창업페스티벌'이 열린다.

광주시는 오는 28~29일 이틀간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240개 스타트업과 270개 투자사, 16개 국내외 대·중견기업이 참가하는 '2024 광주창업페스티벌(Gwangju Startup Festival, GJSF 2024)'을 개최한다.

이번 창업페스티벌은 '실증도시 광주'를 주제로 △개막식 △전시 및 체험 △컨퍼런스·포럼 △투자유치 IR △밋업·네트워킹 △부대행사 등 총 6개 분야의 행사를 진행한다.

28일 열리는 개막식에서는 올해 창업기업제품 실증경진대회에서 '확장현실 기반 실감콘텐츠'로 대상을 수상한 ㈜에스씨크리에이티브와 함께 개막 퍼포먼스를

선보인다. 스타트업과 대·중견기업, 투자사 등이 협력 세레머니를 통해 '실증도시 광주'에서의 동반성장을 다짐한다.

스타트업 170개사와 대중견기업 16개사, 창업유관기관 6개사 전시관을 만나볼 수 있다. 특히 올해에는 창업기업제품 실증지원사업에 참여한 25개 실증 제품에

경험하는 '실증 빌리지'를 선보인다. 실증 빌리지에서는 현재 광주시 전역에서 실증하고 있는 제품을 직접 체험해 볼 수 있으며, 행사 기간 중 참관객을 대상으로 전시해설도 제공한다.

광주시는 '실증 Q&A관'을 운영해 실증지원사업을 안내하고, 실증지원을 희망하는 기업의 사전 수요조사를 통해 수요기관과의 매칭도 추진할 예정이다.

대한민국대표 빅데이터 전문가로 다음소프트 부사장 송길영 작가의 토크콘서트도 열린다. '인공지능 시대 등 미래 방향'을 주제로 진행된다.

더불어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를 논의하는 컨퍼런스도 펼쳐진다. 컨퍼런스에는 △실증분야 전문가가 참여하는 광주시 실증성과 공유 및 향후 방향 △지역 유니콘 기업이 참여하는 지역에서의 성장과 지원 △의료 인공지능 기업인 '루닛' 백승욱 의장의 성장 스토리와 AI가 변화시키는 세상 △수도권 스타트업의 혁신 건의 및 대담 등이 진행된다.

특히 이번 행사에는 창업기업 제품에

대한 수요기관, 투자사를 초청해 전시 참가 스타트업에 직접적인 만남의 기회를 제공한다. 또 판로개척을 지원하는 '실증 테크니컬 투어'도 열린다.

이번에 글로벌 스타트업 투자유치 IR, 산업은행 넥스트라운드 등 총 6회의 투자유치IR 행사를 통해 창업기업의 도약·성장 등을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마련했다.

투자유치 IR, 실증 테크니컬 투어 후 연계행사로 현장에서 수요기관 및 투자사의 영향을 파악해 밋업을 진행한다. 또 전시부스 참여기업과 사전 온라인 신청 등을 통한 200여개의 스타트업과 투자사 간 비즈니스 밋업과 대·중견기업과의 공동 협업 모델 발굴을 위한 밋업 프로그램이 운영된다.

밋업(Meetup)은 '만나다'라는 뜻의 영어 'meet up'에서 유래했다. 비슷한 관심사나 목적을 가진 사람들이 비공식적이고 친근한 분위기에서 서로 정보를 공유하고 의견을 나누는 행사다.

지역연구기관이 보유한 기술을 이전받고자 희망하는 (예비)창업자 대상으로

'창업아이템 기술이전' 기회를 제공하며, '대학연합 창업경진대회'를 통한 대학팀의 창업 아이템도 선보일 예정이다.

올해 창업페스티벌은 일회성 행사를 탈피해 국내외 창업생태계와 사전 네트워킹 행사를 올 2월부터 총 14회 진행했다. 이를 위해 스타트업아우토반코리아, IBK창공, 삼성 C-Lab, 호반그룹, 효성 및 비온시아노베이터, DH글로벌, 호원, 읍도닉스 등 국내외 대·중견기업 등이 참가했다.

강기정 시장은 "이번 광주창업페스티벌은 '미래를 이끄는 실증도시 광주'를 위해 기업과 투자자, 기관이 함께 모여 협력하고 소통하는 기회의 장이 될 것"이라며 "우수한 혁신기술을 가지고 있는 창업기업들이 광주로 찾아오고, 창업기업이 지속 성장해 지역경제에 뿌리내릴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창업페스티벌 공식 홈페이지(www.gjsf.kr)에서 확인 가능하며, 온라인 사전등록은 27일까지 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kwonbeom.choi@jnilbo.com

광주시 "문화누리카드 연말까지 꼭 사용하세요"

소외계층 문화·체육활동 등 지원
개인당 13만원...안 쓰면 자동소멸

광주시는 소외계층의 문화활동을 지원하고자 개인당 13만원을 지급하는 '문화누리카드' 지원금을 올 연말까지 모두 사용할 것을 당부하면서 '전액 소진 인증이벤트'를 진행한다.

문화누리카드는 6세 이상(2018년 12월31일 이전 출생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법정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삶의 질 향상과 문화격차 완화를 위해 1인당 13만원을 지원한다.

문화누리카드는 도서, 음악, 영화, 공연, 전시, 공예, 철도, 시외·고속버스, 여행사, 휴양림·캠핑장, 온천, 체험관광, 테마파크, 숙박, 스포츠관람, 체육용품 등 문화누리카드 가맹점으로 등록된 곳에서 사용할 수 있다.

'전액 소진 인증이벤트'는 광주시에 거주하는 문화누리카드 전액 사용자를 대상으로 25일부터 12월14일까지 20일간 진행된다. 신청방법은 문화누리카드 잔액 0원을 만든 후, 이를 증빙할 잔액 사진과 성

명, 연락처, 카드 앞면 사진을 카카오톡 이벤트 링크(<https://kko.kakao.com/IU2RrlstI>)로 제출하면 된다.

응모자 중 추첨을 통해 101명에게 교환치킨 반반 오리지널 한 마리 교환권을 증정한다. 당첨자는 12월 16일 '광주문화누리' 공식 블로그와 인스타그램·카카오톡 채널(광주문화누리카드)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공지후 응모자 카카오톡 계정으로 기프티콘을 발송할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광주문화재단 예술누리팀(062-670-7492/7493)으로 문의하면 된다.

한편 문화누리카드는 11월30일까지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예산이 소진되면 발급이 제한된다. 발급한 문화누리카드는 12월 31일까지만 이용할 수 있다. 기한 내 사용하지 않은 지원금은 이월되지 않고 자동 소멸된다. 문화누리카드 사용가맹점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www.mnuri.kr),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화누리카드 잔액은 문화누리카드 누리집, 앱, 문화누리카드 고객센터(1544-3412), 농협카드 고객센터(1644-4000)를 통해 조회할 수 있다. **최권범 기자**

전남도, '노인학대 전담의료기관' 치료지원 성과

순천의료원 등 3곳 44건 지원

전남도가 전남 동·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노인학대 피해자의 의료 지원 체계를 강화하며 노인권의 보호에 앞장서고 있다.

25일 전남 동·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에 따르면 지난해 노인학대 전담의료기관으로 지정한 순천의료원, 목포의료원, 강진의료원 등 3곳에서 11월 현재 학대피해 노인인 대한 44건의 진료를 지원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고 있다.

노인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은 학대피해 노인들을 지원하기 위해 전남도가 전남 동·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협력해 2023년 전국 최초로 실시했다.

노인학대피해 어르신들의 신체적·정신적 치료를 위해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건강

상태를 점검하고 필요한 의료 조치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재정적 지원도 병행하고 있다. 이를 통해 어르신들의 건강 상태를 면밀히 확인하고, 필요한 치료를 신속히 제공하고 있다.

노인학대 전담의료기관 지정을 통해 △학대피해 노인의 안전망 구축 △학대 의심사례 신고 및 공조체계 강화 △노인권익보호와 학대 예방 홍보를 위한 상호협력력을 추진하며,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한편 전남도는 동·서부노인보호전문기관과 함께 24시간 노인학대 상담전화(1577-1389)를 운영하고 있으며, 학대피해노인 전용 쉼터 2곳을 순천과 목포에 부설해 긴급 보호와 치유를 제공하고 있다. **최동환 기자**



광주 서구 외식업 컨설팅 수료식

김이강 광주 서구청장이 25일 서구청 나눔홀에서 외식업소 영업자와 컨설턴트 등 25명에게 수료증을 수여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이번 사업은 농림축산식품부 공모를 통해 확보한 사업비 5000만원으로 전문가들이 직접 26개소 매장을 방문해 경영관리, 홍보·마케팅, 메뉴 개선 등 업소별 특성과 문제점에 맞춘 해결책을 제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다. **광주 서구 제공**

전남도,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잔결음

손불 월천~석창 지방도 확포장 3.8km 구간 사업비 500억원 투입

전남도,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잔결음

전남도는 함평 명품 관광도시 조성과 미래 지역발전 디딤돌 조성을 위해 '손불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공사'를 본격 추진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남도와 함평군은 지난해 9월 지방소멸 위기 극복과 서남권 대도약 발판 마련을 위해 전남 서남권을 대표하는 해양관광자원인 함평만 일원을 해양관광 허브로 육성하는 내용 등을 포함한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선포식'을 발표했다.

이번 손불 월천~석창 간 지방도 확포장 공사는 그 일환으로, 함평군의 숙원사업이자 해안일주도로를 보강하는 사업이다. 지방도 811호선에 위치한 함평 손불면 월천리에서 석창리까지 연장 3.8km로, 총사업비 500억원이 투입된다.

함평만 해안일주도로는 총 연장 20.4km다. 공용 구간은 5.1km이며, 함평군에서 공사와 설계 중인 11.6km와 이번에 발주한 3.8km가 완료되면 해안일주도로가 최종 연결돼 명품 도로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공공역량 향상 등 공사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해 마련했다. 안전 교육은 송창영 광주대학교 교수를 초청해 △재난안전관리인문학 △건설재해현황 안전관리 사례 등으로 진행된다. 또 품질 교육은 이재수 (유)창비기술개발

전남도, 함평 미래 지역발전 비전 사업 잔결음

다. 또한 손불 월천~석창 간 지방도로가 준공되면 원전 재난 시 피난도로 역할을 할 뿐 아니라 해안일주도로와 연계해 서남권 관광산업 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전남도는 올해 신안 장산-자라 등 59지구 지방도사업에 179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추진하고 있다. 보성 삼포개-울포간 지방도 확포장공사 등 8개소는 12월 말까지 준공 예정이다.

김재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안전·품질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며 "공사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오지현 기자

광주시, 도시철도 2호선 안전·품질교육

광주시도시철도건설본부는 27~28일 이틀간 도시철도 2호선 건설사업 공사 관계자 등 120명을 대상으로 '안전·품질 관리 정기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 공사 관계자의 안전·품질 관리 역량강화 교육으로 안전사고 예방,

대표이사를 초청해 △품질관리 일반 및 주요 위반 사례 △품질관리 법적 기준 등을 설명한다.

김재식 광주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안전·품질은 건설현장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요소"라며 "공사 관계자들의 역량강화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안심도시 광주'를 조성하는데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최권범 기자**